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20호) 2010.12. pp.139~166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다문화모티프를 중심으로

A Study of Identity of Korean American Novel

안 광(순천대 부교수)

차 례

- | | |
|-----------------------------------|--------------------|
| 1. 서론 | 2. 본문 |
|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언어와 소수 이민자와의 관계 |
| 2) 미국문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 유형
및 연구사 검토 | 2) 주요 인물 분석과 창작심리 |
| 3) 이창래의 문학적 위치와 성과 | 3. 결론 |

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21세기에 진입한 이후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다양한 외국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국가로서 오랜 세월 중국과 일본의 교량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는 대륙의 중국문화와 도서국가인 일본 사이에서 독특하고 섬세한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

* 이 논문은 2010년 4월 10일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문예창작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2008년도 순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2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하지만 19세기 말 제국주의의 팽창은 45년간 일본 강점기의 역사적 고통을 가져왔고 해방이후에도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통일조국과 진정한 민족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한반도에 미군 주둔이라는 외세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는 역사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²

문학 또한 이러한 분단현실의 특수성과 무관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하에 미국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의 급격한 유입으로 말미암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타자의 위치로 밀려나게 되고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분석하기 위한 문학적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외세를 등에 업은 군부정권의 정치, 사회적 억압구조가 최고조에 달한 1970, 80년대에는 분단문제를 문학현실 속에 형상화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반미의식, 노동쟁의의 상황을 소설화하여 일종의 탈식민주의적 문학운동이 시도됨으로 문학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³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오

1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민족사의 흐름에 엄청난 충격과 굴곡을 가져왔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전쟁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남한쪽의 사상자 230만여 명과 북한쪽 290만여 명, 도합 520만 명의 사상자와 유엔군과 중공군까지 100만여 명을 합친다면 총 620만여 명의 인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양산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34쪽~235쪽).

2 한국전쟁은 지금까지 있었던 지구상의 어떤 전쟁과도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전쟁이란 주지하다시피 '국가간에 자국의 의사를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조직적인 무력투쟁 혹은 폭력행위의 상태'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여타의 전쟁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단일민족이 각각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동족상잔의 형태로 펼쳐진 이념전(理念戰)이라는 점과 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무서운 상처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의 원점으로 돌아가 분단대지의 국면이 60여 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라는 점, 한반도 내의 국지전(局地戰)이면서도, 2차 세계대전 후에 무장해제 되었던 세계 20여 개국을 재무장시켜 참전케 한, 세계대전의 성격을 띤 전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한층 굳어져 세계 각국들이 좌우 이념의 첨예한 대립으로 보수 강경화되었다는 것도 이 특수성의 결과이다(문학과사회연구회, 『문학과 현실의 삶』, 국학자료원, 1999, 204쪽).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3

면서 '민족국가(nation-state)'의 개념이 급속도로 퇴조하면서 다문화주의나 세계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권력이 혼재되는 다양성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다문화 모티프 소설이란 이런 문화의 충돌과 유입의 환경 하에 둘 이상의 문화권이 충돌하면서 야기되는 환경의 변화, 사회의 변화들을 다루는 소설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미국과의 관계, 일제와 한국전쟁 시기, 자의로 혹은 타의로 이주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교포들의 문제⁴,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 이후 하층노동계급으로 유입되어 온 조선족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노동자와의 문제, 사회구조의 불균형으로 급속히 늘어난 농촌 다문화 가정 등,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유입되고 갈등을 빚고 융화 혹은 충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시기에, 이를 소재나 배경으로 창작되어진 소설작품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분석 또한 필요한 일로 대두되었다.

다문화 모티프 소설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프란츠 파농은 탈식민주의의 특성을 적대적인 두 힘의 대결로 보고 그것을 바꾸는 일이 '탈식민주의'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탈식민화는 개개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개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탈식민화는 식민화 되었던 사물에게 자유를 수여함으로써 그 사물을 인간으로 바꾸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가장 후위의 것이 전위가 되고 가장 전위의 것이 후위가 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탈식민화이다.

후위와 전위가 바뀌어야 하는 실천의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체와 타자의 자리바꾸기이다. 지금까지 타자로 있었던 피지배층을 주체로 끌어오는 일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문학은 외부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통찰, 즉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표현되는 관점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자세로부터 획득되는 시각이어야 비로소 객관성을 획득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둘러싼 환경과의 마찰과 교육, 사회전반의 압박은 작가나 등장인물에게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며 이것이 주요한 소설적 주제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4 2007년 제외동포현황 (단위:만명)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중남미	E.U	유럽	중동	아프리카	기타	합계
276.2	89.4	201.7	21.7	10.8	53.4	11.1	0.9	0.8	38.4	704.4

장윤수,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세계지역연구논총』, 26권, 3호, 2008, 87쪽.

4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첫째, 미국주둔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문화(異文化)와의 갈등과 주변 한국인의 생활상을 그린 기지촌 문학. 둘째,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의 이민생활을 그린 이민 문학. 셋째, 강제로 이주를 당한 난민형태를 다룬 디아스포라 문학⁵. 넷째, 한국에 유입된 외국 노동자나 한국인의 배우자로 정착하게 된 외국인과의 관계를 다룬 외국인 이주 문학. 다섯째, 한국작가가 해외를 여행하거나 외국을 배경으로 창작한 외국배경 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으로의 이민생활을 모티프로 이주환경과의 갈등과 혼란,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심리적 정체성, 집단에 융화되지 못하는 아웃사이드로서의 고뇌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미국문단과 세계문단에 높은 평가를 받은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를 텍스트로 삼아 다문화 모티프가 어떻게 소설로 형상화되며 그 중에서도 ‘언어’의 문제가 어떤 작용과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해 볼 것이다.

2) 미국 문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 유형 및 연구사 검토

미국 문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을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서로 충돌하여 융화 혹은 배격하며 만들어지는 갈등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 정의한다면 그 범위는 상당히 넓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의 물결이 거센 오늘날 뿐 아니라, 일제 36년의 식민지 시대와 그 후 미국의 문화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변화해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문학적 소재로서의 다문화의 충돌에 관한 패러다임은 다양하게 펼쳐

5 근자에 들어 ‘디아스포라(diaspora, 離散)’ 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원래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유대인들이 개척자적 정신을 갖고 주변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적 상황에서 파생된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점차 이주, 이산에 따른 이민자들의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착목하게 된 결과로 보여진다. 디아스포라 문학의 어의는 점차 확대되어 이산(離散)의 개념뿐 아니라 이민의 개념도 점차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윤정현,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21권, 2006. 115쪽.

져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로 기지촌 문학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지촌 문학은 분단문학의 하위 개념으로서 기지촌 부근에서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주요인물로 등장시켜 왔다. 해방과 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은 16개국의 U.N 군과 중국 및 소련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국지전 형태이면서도 세계 20여개국이 참여한 세계대전의 성격을 띤 전쟁이었다. 이런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전쟁 이후 한반도에 다양한 세력권이 그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3·8선 이남 쪽엔 전쟁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⁶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이민족의 군사적 지배력과 함께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이질적인 문화적 충돌현상을 가져왔고 그 파급된 영향의 결과와 부산물은 여러 차례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어린아이의 시각을 빌어 미군부대 주변의 양공주와 부대주변에 기생하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주인공 소리킴을 통하여 주둔군으로서 강력한 폭력성을 지닌 미군의 실상을 파헤친 송병수의 「소리킴」(1957년), 기지촌인 용주골을 방문한 한 남성을 통해 커다란 미국개와 한국 토종인 황구의 교미장면을 보여줌으로 약하고 힘없는 민족이 힘센 강대국에 의해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적 현실을 비유적 상징으로 표현한 천승세의 「황구의 비명」(1974년), 미군의 집단 강간으로 사지가 헝클어진 배넛병신으로 세상에 나온 아베와 그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한 가족을 미군 G.I가 된 주인공이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1979년), 한국전쟁 후 기지촌을 주변으로 기생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매춘여성인 중심이 아

⁶ 한국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 평시 한반도 방어를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10대 군사임무(대화력전 수행본부 지휘와 통제임무, 해상대특작부대 작전임무, 근접항공지원 통제 등)를 2004년 8월-2008년 9월에 한국군이 모두 인수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2005~2007년 기간에 철수했다. 대부분 수도권 방어를 핵심전력인 미2사단 병력이 나갔다. 지금 남아 있는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으로 미2사단(동두천)의 1개 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미7공군(오산)이 대부분이다.

6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나라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미군의 주둔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을 통해 상호협력 할 수 밖에 없다는, 우익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그려낸 북거일의 「캠프 세네카의 기지촌」(1994년), 미군 전용 술집을 배경으로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실태를 내부자의 시각에서 직접적으로 그려낸 조해일의 「아메리카」(1974년), 자식을 키우며 혼자 살던 과수택 '엔레'가 미군에게 강간을 당한 후 점차 양공주로 전락해 가는 과정과 그녀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양태를 그린 안정효의 「은마는 오지 않는다」(1990년) 등이 있다. 미군부대 주변의 열등적인 한국인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정면적으로 미군부대 안에서의 한국병사로서의 대결의식을 다룬 작품도 있다. 미 8군 병참보급대의 연락장교로 온 김대위가 카투사병들을 엄하게 다스려 기강을 잡아 미군 병사와의 대결에서 약소민족의 열등의식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신상웅의 「분노의 일기」(1972년)가 그것이다.

둘째, 강제로 이주를 당한 난민형태를 다룬 디아스포라 문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근자에 들어 회자되기 시작한 디아스포라(diaspora, 離散) 문학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확산되고 있다. 이 용어의 의미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리스어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이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파생된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점차 이주, 이산에 따른 이민자⁷들의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문학적 용어로 접목되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강제이주의 개념을 띤 디아스포라 문학으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을 거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30년 동아일보에 연재되면서 하와이행 이민자들

7 이민이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행위,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의 땅에서나 옮겨가는 땅에서나 이들을 보는 관점은 구세계로부터 도망자이자 신세계의 발견자 혹은 항해자이자 모험가들이다. W.Q. Boelhower, 「The Brave New World of Immigrant Autobiography」(The Society of the Multi-Ethnic Literature of U.S.A., 1982) p.11.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7

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그려낸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1930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미주 이민자를 그린 조정래의 『아리랑』(2007년), 미주지역이 아니라 남미가 배경이지만 여러 사연을 지닌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노동을 당하게 되어 멕시코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 애니깽을 다룬 김영하의 『검은 꽃』(2003년)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이민 문학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디아스포라 문학이 강제 이주의 개념을 띠었다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의 이민 형태라 볼 수 있는 이민문학은 주로 미주교포들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그 작품적 성과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영어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한국인의 이민 2세대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1995년) 『제스취 라이프』(2005년) 등은 미국문단에 높이 평가받고 있다. 꿈의 나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식 교육에 헌신했으나 자식은 이미 미국적 사고방식의 미국인으로서 한국적 정서의 아버지와 충돌하는 이민 가족을 그린 안정효의 『미국인의 아버지』(1993년) 등이 있다.

위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분석하여 본 바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발표된 소설들은 대부분 기지촌을 배경으로 주둔군과 한국인과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발표된 작품들은 미국을 배경으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이민자들의 고난과 적응과 갈등을 소재로 작품이 발표되었다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문화 모티프 소설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기존의 기지촌 소설이 남성적 시각에 의해 정작 매춘부의 삶은 도구화, 대상화 되었다는 주장을 편 박선애의 「기지촌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현대소설연구』 2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01), 비서구(非西歐)에서의 글쓰기, 또는 서구에서 비서구인으로서의 글쓰기는 곧 우리의 고유성과 정체성 문제 뿐 아니라, 세계 문명예의 동침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이창래의 『제스취 라이프』를

8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예로 들어 다문화시대에 한국문학이 경계를 허물고,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성곤의 「세계화 시대의 한국문학」(『비교한국학』 8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01. 1), 해외입양아의 문제를 다룬 장윤수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세계지역연구논총』 26권,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이창래, 돈오 김, 안정효의 작품을 통해 미주 이주민의 정체성을 연구한 윤정현의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한국문예비평연구』 21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 등이 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미국 문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작품은 매우 활발히 발표되어 왔으며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다양한 소설작품의 발표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3) 이창래의 문학적 위치와 성과

이창래(李昌來, 영어: Chang-Rae Lee, 1965년 7월 29일-)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로서 세계문단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일 것이다.

이창래는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에서 자라나 예일 대학교 영문과 학부를 졸업하고 오레곤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학위(MFA)를 받았다.

그의 첫 소설 『Native Speaker』⁸(1995)은 첩보활동에 연루된 한국계 미국인의 아웃사이드러 같은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으로 그는 PEN/헤밍웨이상, 아메리칸북상 등 미국 문단의 6개 주요 상을 수상했다. 1999년에는 두번째 소설 『A Gesture Life』를 출간하였는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으로 복무하면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들을 관리했던 경험을 갖

8 『영원한 이방인』, 『네이티브 스피커』로 번역 출간(정영목 옮김, 나무와숲, 1995)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9

고 있는 연로한 의사 하타의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과 융화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2004년에 나온 『Aloft』는 평단의 상반된 평가를 받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처음으로 비한국인 주인공이 등장했다. 2010년에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네 번째 소설 『서렌더드(The Surrenderd)』를 출간하여 미국 문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이창래는 프린스턴 대학교 인문학 창작과정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2007년에는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용되어 한국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의 첫작품 『네이티브 스피커』는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 소수민족, 그것도 아시아계 소수민족으로 겪는 자아의 정체성 혼란과 의사소통 문제, 상류사회로의 진입과 좌절의 상황을 다양한 장치를 통해 형상화 하고 있다.

『네이티브 스피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민자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종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은 작가가 소설전반에 장치해 놓은 가장 뚜렷한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 문제와 함께 주인공 헨리 박에게 나타난 이민 소수자로서 갈등과 심리상태를 분석해 보고 부수적인 인물들과의 관계망을 통해 작중인물의 성격과 작가의 창작심리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⁹

9 정체성을 규정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언어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10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2. 본문

1) 언어와 소수 이민자와의 관계

언어는 태어나면서부터의 경험이 이루어낸 하나의 살아있는 정신이며 의식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나 영어를 일상용어로 쓴다는 것은 한국식으로 또는 미국식으로 사고(思考)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날 식민주의자들이 원주민의 언어를 말살하려 한 것은 그들에게서 민족의식을 제거하고 정신적인 노예화내지 동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상황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신과 경험과 기억의 교체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그런 처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으며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소수 이민자로서 모국어를 감추고 새로운 언어를 체득하는 것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그 국면에서 야기되는 정체성의 혼란은 모든 디아스포라 문학의 근간을 이룬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주인공 헨리 박은 소설 전반에 걸쳐 그런 언어에 대한 콤플렉스와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학교교육을 받고 직장에 다니고 백인여자와 결혼한 주인공이지만 아내조차도 그의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청소를 하다가 우리 침대 밑에서 종이 조각을 하나 발견했다. 이번에도 그녀
의 필체였다. 언어를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 (『영원한 이방인』, 원제 『네이티브
스피커』 나무와숲, 26쪽-이하 동일한 책임)

결혼한 아내조차도 내심으론 언어의 불일치를 불만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은 헨리 박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언어적 불일치는 문화와 사

고의 불일치를 야기시키고 동일화되지 못하는 부부는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된다. 물론 소설 속에서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지만 언어로 인한 갈등은 소설 전반에 깔려있는 가장 큰 요인이며 작가의 중심 테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와의 첫만남에서도 언어에 주인공의 관심은 중요한 모티프로 언급되고 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끌렸다. 그녀의 자태가 마음에 들었다. 남자들이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다운 정서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 역시 그런 남자들과 똑같이 죄를 지은 셈이다. 그런 면을 볼 때면 목이나 가슴을 꼬집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얼굴과 태도, 그녀의 몸매, 뭐라 말할 수 없는 향기를 평가하기 전에도, 사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나는 내가 그녀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그녀가 정말로 말을 할 줄 안다는 것. 처음에는 그녀가 지나치게 반듯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녀는 단지 언어를 집행하고 있을 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 단어씩 나아갔다. 모든 글자에는 경계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크고 풍만한 입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은 어두운 집을 돌아다니며 불을 켤 수 있는 지점들을 점점이 또는 줄줄이 완벽하게 짚어 내는 사람처럼 자신의 문장들 속을 휩쓸고 다녔다.

어떤 엄격함을 갖춘 관능. (위의 책, 33쪽. 밑줄은 임의로 표시함. 이하 동일함)

주인공 헨리 박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의 완전한 일치를 희망하나 그의 심리적 근저에는 언어의 불일치로 인한 콤플렉스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는 상대방의 언어와 자신의 언어에 대해 과도한 관심과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어떤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도 주인공은 상대방의 언어 구사력에 주목하고 있다. 언어를 의식하고 생활할

12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수밖에 없는 소수이민자로서의 미묘한 심리상태. 그런 장면이 작가 이창래가 노리는 소설적 장치임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 의도를 작가는 주인공 헨리 박과 아내의 첫 만남에서 직접적인 대화로 표출해 보이고 있다.

“나 같은 사람들은 혹시 내 억양이 아직도 어색하지 않나 하고 언제나 신경을 쓰죠”

나는 소금, 알코올, 라임의 작용을 의식하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나는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물론 지금은 완벽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아마 의심없이 그냥 넘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아뇨, 그건 아니고요” (위의 책, 35쪽)

언어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주인공의 아버지에게서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민 1세대인 아버지는 미국에 힘들게 정착하면서 주인공보다 훨씬 언어적 장애와 피해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자신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들을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나 그런 상황은 되려 주인공에게 깊은 내상을 입히게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어실력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만 아들의 입장에선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기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한계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 반항하는 심리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는 장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들에게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 주라고, 그것을 과시하라고, “셰익스피어 말 몇 마디”를 식은 죽 먹기로 외워 보라고 다그쳤다.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13

나는 그의 왕자 헬(헨리의 애칭으로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왕자-옴긴이)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최고의 한국어로 투덜거렸다. 아버지에게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는 조금밖에 없었다. 내가 계속해서 우리 일에서 쓰는 언어만 사용하면, 손님들에게 내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거기에 없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위협하지 않는 말쑥한 그림자였다. (위의 책, 103쪽)

그런 언어적 불일치는 가족 사이의 갈등에서도 직접적인 충돌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일상의 생활언어 정도를 구사하는 아버지와 미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는 아들과 영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한 공간에서 부딪히는 모습은 언어로 빚어진 바벨탑이 굉음을 내며 붕괴하는 것처럼 흉측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의 영어로 된 속된 욕설에 대해 경멸과 반항심의 발로로 보여지는 아들의 의미도 없는 고급언어를 쏟아내는 장면은 언어라는 장벽에 좌절하고 울부짖는 이민자들의 상호불통의 극단적인 콤플렉스의 표출로 보여진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는데, 영어였다. 가끔 아버지는 거짓말을 감추고 싶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면 영어로 말을 했다.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도 중간에 갑자기 영어로 말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마치 아버지가 깨끗한 주먹 싸움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든 것처럼 “노, 노!” 하고 애원하곤 했다. 한번은 가게에서 어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거리의 욕설을 끔찍하게 내뿜으며 어머니를 호되게 나무라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마이 핫 마마 섯 에스 타이트 캅 서카(My hot mama shit ass tight cock sucka : 성과 관련된 욕설-옴긴이)”나 “슬랜트-아이 스피크-앤-스펜 마다-퍼카 (Slant-eye spic-and-span motha-fucka : 동양인, 남미인과 관련된 욕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옴긴이)”나 하는 소리를 질러냈는데, 틀림

14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없이 가게에 온 손님들한테서 주워들었을 것이다. 나는 부모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아버지에게 고향을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의식적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이야기 하여 아버지가 애용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겹과 불공평함에 대해 보복을 하자, 아버지는 마침내 탁자를 두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유 셋 업! 유 셋 업!”(You shut up! You shut up! 입을 다물라는 뜻—웁긴이)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계속 몰아붙였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아는 가장 큰 말들, 학교에서나 사용하는 “소시오이코노믹 (socioeconomic)”이니 “인텔저블 (intangible)”이니 하는 말들, 내 어지럽게 떠오르는 생각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아버지에게 내뱉었다. 마침내 내가 떠드는 내내 한마디로 하지 않고 있던 어머니가 내 뒤통수를 세게 갈기며 한국말로 소리쳤다. 내가 뭔데 나서는거야? (위의 책, 118쪽)

이런 성장 환경을 배경으로 주인공 헨리 박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영어의 발음에 의식적으로 긴장하는 부자유스러움을 내면 깊숙이 가지고 생활할 수 밖에 없다. 작가는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이민자로서의 한계를 언어라는 문제로 집약시켜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신의 콤플렉스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처지의 이민자를 대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인공 헨리 박이 그가 직업적 업무로서 존 강에게 접근하여 상당히 친숙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도 상대의 언어에 대해 자신에게 느끼는 긴장감을 똑같이 의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농담을 했다. 나는 우리가 보통의 미국 남자들처럼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동작을 꾸미고, 몸을 슬쩍 낮추고, 예상치 못한 몸짓을 해가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말을 잘 해도, 그가 그의 단어의 소리들 사이로 아무리 완벽하게 움직여 나아가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15

도, 나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며 그의 원래의 인종을 말해주는 잘못된 어조, 표시, 사소한 실수를 찾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비디오 테이프를 그를 몇 시간 동안 보았지만, 그의 말에는 여전히 내가 견딜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위의 책, 302쪽)

주인공 헨리 박의 의식 속엔 네이티브 스피커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원초적 한계에 대해 이민자인 타인에게도 그런 콤플렉스를 발견하려는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제도권에 들어와 그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주인공은 완벽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영어가 우리 한국어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마치 다른 종류의 외투를 입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나는 언어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또는 내 혀가 처음 말을 시도할 때부터 뽕뽕 뉘이고, 그렇게 뺏뺏해지고, 뒷에 걸려 죽어 가는 짐승처럼 몸부림칠 줄도 몰랐다. 원어민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음하기가 힘들다. 한국어에서는 L 발음과 R 발음이 구별되지 않는다. 소리는 따로따로이며, 스페인어식으로 현란하게 떨리는 소리나 혀를 꼬부리는 소리가 없다. 우리한테는 B와 V도 없고, P와 F도 없다. 나는 늘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발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위의 책, 387쪽)

주인공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함으로 언어교정을 받는 어릴 때의 기억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곧 열등한 인간이라는 대입(代入)으로 작용하여 그의 행동과 언어와 성장과 정체성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매일 특별 수업을 받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교실을 나갈 때면 엘

16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리스는 나를 놀리곤 했다. 내가 받는 특별 수업은 '언어 교정'으로, 나는 바로 그 수업 이름을 받음하기 힘들어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 수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 외의 다른 학생들은 부적응 학생들이었다. 모두 머리가 더러웠고, 입은 지나치게 컸으며, 이마는 쭈그러든 것처럼 보였다. 내 눈에는 마치 시체처럼 둔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였다. 우리는 학교의 지체아들, 정신박약아들, 실패자들이었다. 말을 더듬거나, 화를 내며 길길이 뛰거나, 바지에 오줌을 지리거나, 필요한 말을 할 줄 몰랐다. (위의 책, 389쪽)

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열등한 인간이라는 어렸을 때의 원체험은 그의 정체성에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갈등구조가 『네이티브 스피커』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맞닿게 된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작가는 언어치유의 해법으로 열등감을 주지 않는 언어 교육을 제시해 주는 듯하다. 주인공의 아내 릴리아는 언어치료사로서 매우 모범적이고 부드러운 역할을 매끄럽게 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겁고 날카로운 주제의식—소수 이민자로서의 언어적 정체성—을 해소하기엔 너무 당연하고 막연한 해법으로도 보이나 그보다 더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자의적으로 이민을 간 소수자들에게 영어는 필요불가결한 생존의 명제이며 그 언어를 습득할 수 밖에 없다면 영어 교육자는 언어에 대한 우월감을 배제하고 피교육자는 열등감을 최소화하여 교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릴리아는 다른 언어 작업은 시도하지 않는다. 어차피 아이들은 거의 외국어를 하는 아이들이다. 그녀는 아이들의 숫자로 볼 때 그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아이들이 몇 번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이어 그 아주 부드럽고 기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17

묘하고 과장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준다.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언어를 옷머거리로 삼은 창백한 백인 여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한다. 아이들이 엉터리로 말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위의 책, 564쪽)

소수 이민자로서 정체성에 갈등을 겪는 인물들을 형상화하면서 작가가 '언어'라는 문제를 가장 큰 주제로 삼은 것은 이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장치이며 효과적인 선택으로 보여진다. 소수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네이티브 스피커'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도처에 장치해 놓으면서도 미국문단에서 우아한 문체와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창작으로만이 아니라 미국인에게 글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언어구사의 유연함과 자유스러움을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아이러니하다. 그것은 소설 속에 나타난 언어적 정체성의 문제를 역설적이며 현실적으로 극복하고 그 반대의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는 소수이민자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다문화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이 먼 동양의 한 나라에 뿌리를 둔 이창래에게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2) 주요 인물 분석과 창작심리

(1) 주인공 헨리 박에 대한 인물분석

사설 홍신소 직원인 주인공 헨리 박은 자신에게 할당된 인물에게 접근하여 그의 약점을 캐내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의

18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임무를 수행하며 살고 있다. 작가가 그에게 스파이라는 직업을 설정한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나는 미국사회를 구성하는 주류의 시각으로보다는 국외자, 방관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점의 획득이고 또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누구라도 될 수 있고, 어쩌면 동시에 여러명이 될 수도 있는, 정착해서 고정된 자아를 가지지 못한 자, 즉 이민자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래서 그는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이다. 주인공의 아내 릴리아는 단정적으로 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당신은 숨기는 게 많아. 불법외인이며 정서적 외인. 낯선 사람이며 반역자, 첩자’라고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의 직업을 스파이로 설정한 것은 이 소설의 주제적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장치이다. 작가의 의도와 소설의 형식이 작품 속에서 잘 어우러진 부분이다.

그러나 그는 국외자로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독한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스파이라는 당당하지 못한 직업 또한 그에게 허위와 위장으로 가득찬 삶을 강요하도록 되어 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그의 자아는 홀로 외로움과 대면하고 있다.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무서울 정도의 외로움이었다. 얼굴에서 잠을 씻어내다 가 어렸을 때 한동안 새벽 동트기 전에 잠을 깨 현관으로 나가곤 했던 일이 떠올랐다. 늘 완전한 고요와 어둠뿐이었다. 이 땅에 나를 빼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한국인 아버지나 어머니도 없고, 이웃은 남자에나 여자에도 없고, 내 미국식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선생도 없었다. 그러면 나는 그 혼자뿐인 순간에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안을 달려들어가 거울을 보곤 했다. 그러나 나를 마주 보면 역시 똑같은 남자가 더 분명해진 것도 없이, 그 까다로운 얼굴 안에 굳게 자리잡고 있었다. (위의 책, 526쪽)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19

이민이라는 선택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이었지만 주인공에게 원초적인 외로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 소설 속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고달픈 청과물 상점을 하고 나중에는 자수성가하여 나름대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주인공과 달리 그는 철저한 신념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족이다. 그것이 아버지를 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주의 역할을 하고 주인공은 그런 환경 속에 길들여져 있다.

아버지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이 반드시 가족문제였다. 나는 그 섬세하고 무시무시한 서열에 대해, 그것이 사람들을 황금같이 귀중한 자식, 노예와 같은 아들이나 딸, 존경받는 아버지, 오래전에 죽은 신으로 다양하게 등장시키는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가족적인 정확성이 가져다 주는 기본적인 편안함도 알고 있다. 이 가족관계는 논쟁을, 질문이나 다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책, 27쪽)

외로움,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 국외자, 스파이로서의 주인공의 삶은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확고부동한 아버지의 신념은 아들과 여러 차례 갈등을 야기시킨다. 이민 1세대이며 근면하고 성실하며 유교적 전통에 충실한 아버지의 모습은 한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2) 존 강에 대한 인물분석

소설의 중반부부터 강한 흡입력을 갖고 독자를 끌어들이는 인물은 주인공이 약점을 캐기 위해 접근하는 존 강이라는 한국인이다. 존 강의 정적

20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政敵)으로부터 존 강의 정치자금이나 사생활을 파헤치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주인공은 그에게 스파이로서의 책무감과, 가까이할수록 느껴지는 존 경심의 양가감정을 가지고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존 강은 한국계이며, 나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약간 아래였지만 아름다운, 거의 형식미를 갖춘 영어를 구사했다. 그는 포덤 대학에서 법학 박사과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였다. 전문가들은 그의 성실성에 대하여, 그의 지능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가 속한 당은 그에게 시장에 출마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잘생긴 테다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가장자리를 따라 은빛이 어른거리는 느낌이었다. 약간 난공불락의 느낌을 주었다. (위의 책, 53쪽)

존 강은 어려서 한국전쟁을 겪고 미국으로 건너와 거지와 다름없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다가 밑바닥에서부터 막노동으로 사업을 일으켜 시의원이라는 위치에까지 오르는 이민사회에 뿐만 아니라 미국주류 사회에서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다. 존 강은 시의원과 성공한 사업가의 위치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 헨리 박은 그의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여 그의 비리를 캐는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주인공은 존 강의 인품과 열정에 차츰 매력을 느끼며 아버지와 같은 친애의 감정과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는 존경의 생각까지 품게 되며 동족의 비밀을 캐고 수집하는데 갈등하게 된다. 그러나 존 강의 실체는 겉으로 드러난 존경받는 이민자들의 성공한 롤모델로부터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삼고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며 결국 파국으로 치달아 경찰에 구속되는 결말로 한 이민자의 추락을 보여준다.

왜 존 강이라는 인물을 성공한 이민자의 모습에서 타락한 정치인의 추

악한 모습으로 만들었는가에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이민자는 주류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었을 것이다.¹⁰

더군다나 한인 미국교포들이 백인들에 비해 미대륙에 200년 가까이 늦게 진입했다는 이민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영원히 국외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우울하고도 슬픈 결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인공의 직업이 스파이라는 한계, 유력한 시장후보로서 존경할만한 인물인 듯하였으나 결국 본모습은 그리 존경할 수 없는 범죄자로 추락하는 존 강이라는 인물의 설정. 작가는 소설의 시작에서부터 이러한 굴레와 한계를 인정하고 소설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분석이 가능하다. 비록 마지막에 주인공이 스파이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언어치료사인 아내를 돕는 일로 희망적인 결론을 유도하려 하나 그 희망은 실은 미약하고 제스취적인 한계이다. 존 강 같은 인물이 주류로 진입하는 결말이 더 실제적이고 희망적임에도 작가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작가가 체득한 이민자로서의 한계가 아닐까 싶다.

(3) 아내 릴리아에 대한 인물분석

주인공의 아내로 등장하는 릴리아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완벽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선량하고 지적이며 미모에다 휴머니즘까지 겸비한 그녀는 소설의 결말에서 소수 이민자의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등장한다. 작가는 릴리아를 통해 구원과 해결의 주체의식을 보여주고 싶다는 작의를 뚜렷하게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¹⁰ 『네이티브 스피커』의 국내 번역서 제목이 『영원한 이방인』으로 바뀌어진 것이 일정부분 이 추론을 옹호하고 있다.

22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릴리아는 모든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나누어 준다. 그녀는 출석부를 보고 해 모양의 배지 안에 아이들 이름을 적는다. 그녀는 모두 훌륭한 시민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름을 중얼거리며 얼른 스티커에 적고, 나더러 교실에서 나가는 아이들 가슴에 그것을 달아 주게 한다. 말없는 얼굴들이 줄지어 있다. 나는 머리 속에 아이들 이름을 적는다. 그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아이들 이름을 부른다. 고저와 억양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그녀가 원주민의 아름다운 언어 여남은 가지를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 주는 그 어려운 이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위의 책, 565쪽)

작가는 주인공의 아내 릴리아에 대해서 거의 결함을 갖지 않은 완전성의 여인으로 그려내고 있어 그 창작심리의 기저에 깔려 있는 백인의 완전성에 대한 갈망과 열등의식, 순종적 자세와 뉴앙스는 좀 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외자로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스파이라는 직업의 이중성을 안고 갈등하는 주인공 헨리 박, 이민 1세대로서의 완고함과 근면성으로 한 전형을 획득한 아버지, 이민자로서 성공의 문턱까지 가다 좌절하고 몰락해버리는 인물, 존 강, 완벽한 구원자의 이미지로서의 아내 릴리아, 이 모든 주인공과 등장인물 등은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에 제각기 충실하고 있는 셈이다.

3. 결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변화 속에 한국 사회는 다양한 외국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 왔다. 특히 미국은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학 또한 다문화주의와 세계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와 충돌 융합되면서 다양한 양태의 문학작품이 발표되어 왔다.

미국 문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은 대략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 주둔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문화(異文化)와의 갈등과 주변 한국인의 생활상을 다룬 기지촌 문학.

둘째, 미국으로 강제성을 띤 이주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는 디아스포라 문학.

셋째, 강제 이주의 개념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이민한 미국교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민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위의 분류 중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문학적 성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대한 분석이다.

『네이티브 스피커』는 1995년에 발표되었지만 소수이민자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인물을 형상화하여 세계문단에 주목을 받은 이창래의 작업은 오늘날에도 충분한 가치와 시대적 현장성을 갖고 있다. 세계화와 다문화주의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거대 미국에 이민간 소수인종으로서의 한국인과 한국의 정체성은 오늘날의 시대상황으로 문학적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창래는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언어라는 문제를 도구로 이민자의 정체성을 분석하여 언어와 인간 의식구조와의 상관관계를 소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주인공 헨리 박은 소설 전반에 걸쳐 그런 언어에 대한 불일치와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상대방의 언어와 자신의 언어에 대해 과도한 관심과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런 이민자로서의 언어적 콤플렉스를 배경

24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으로 주인공 헨리 박은 미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영어의 발음에 의식적으로 긴장하는 부자유스러움을 내면 깊숙이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이민자로서의 한계를 언어라는 문제로 집약시켜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열등한 인간이라는 어렸을 때의 원체험은 그의 정체성에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갈등구조가 『네이티브 스피커』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맞닿게 된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작가는 언어치유의 해법으로 열등감을 주지 않는 언어 교육을 제시해 주는 듯하다. 아내의 언어치료사로서의 역할과 그녀를 돕는 주인공의 행동은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소수 이민자로서 정체성에 갈등을 겪는 인물들을 형상화하면서 작가가 ‘언어’라는 문제를 가장 큰 주제로 삼은 것은 이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장치이며 효과적인 선택으로 보여진다.

이창래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기를 갈망하나 도달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갈등하고 좌절하며 적응해가는 인물군을 통해 미국문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로서 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홍신소의 스파이라는 주인공의 직업과 배경설정 또한 소설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 보이는데 적합한 장치로 읽혀진다. 다만 성공한 이민자에서 추악한 위선자의 위치로 추락한 존 강의 설정과 백인 부인 릴리아의 결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성은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래적 소수자로서의 한계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호, 『탈분단 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 김미영, 「한국(근)현대소설에 나타난 미국 이미지에 대한 개괄적 연구」, 『미국학논집』, 한국아메리카학회, 2005. 겨울.
- 김문환, 『이라크 미국 한반도』, 다인미디어, 2003.
- 김성근, 「세계화시대의 한국문학」, 『비교한국학』 8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01. 1.
- 김용락, 『민족문학 논쟁사 연구』, 실천문학사, 1997.
- 문학과사회연구회, 『문학과 현실의 삶』, 국학자료원, 1999.
- 박선애, 「기지촌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1.
- 박수정, 「누가 네이티브 스피커인가?—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종과 언어의 관계」, 『효원영어영문학』 제22집, 2004. 2.
- 복미영, 「다문화의 융합 네이티브 스피커를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영문학과 석사논문, 2002. 8.
- 오창은, 「이주문학에 나타난 정체성 변화에 대한 고찰」, 『국제한인문학연구』 창간호, 국제한인문학회, 2004.
- 윤정현,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21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
- 장윤수,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세계지역연구논총』 26권,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26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Abstract

A Study of Identity of Korean American Novel

—focused on Multicultural Motif of *Native Speaker* by Lee Chang Lae

An, Kwang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rapid changes in the Korea Society and a variety of mutual influence of foreign cultures has been developed on the subject.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have influenced South Korea's culture and our social and economic throughout three years after the liberation war with U.S. military and Korean War. Korean Literature also have changed the impact of information in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represented by the fusion of Western culture as the embodiment of various literary works have been published.

A novel, American culture as a motif, about classified into three types will be able to see.

First, according to the U.S.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region taking place in different cultures (異文化) with the conflict and dealing with the life of Koreans around the camp towns literature.

Second, the diaspora literature with the force of the United States charged to develop a form.

Third, the concept of forced migration in the form of voluntary and active with the American dream, according to the immigrant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emerged as the hero, the immigrant will be able to be classified as literature.

The third type of paper belongs to the category of immigrant literature that has an international assessment of the most literary and the Chang rae Lee's *Native Speaker* is about the analysis.

Native Speaker was released in 1995, ethnic minorities suffer from the confusion of identity as shaped figures around the world literary acclaim Chang rae Lee's work today has sufficient value and historical realism. Dominat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a huge wave of e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s the Koreans and the vast minority on earth is a small area of the South Korea should expand its space in the country even though the symbol, there will be a same category.

Chang rae Lee made *Native Speaker* successful in the issue of language as a tool to analyze the identity of immigrants, language and human consciousness structure to express the relationship.

Private detective agency, the hero's occupation is a good installation of this novel. The profession and the background setting also seems to reveal the subject matter can be read by a suitable device. However, John Kang, immigrants who became the ugly hypocrisy set to the location of the crash and a white wife, Lilia's completeness of the intentional minority writers have their limitations as may be exposed the visible portion.

- 주제어 : 한국계 미국소설 (Korean American Novel), 정체성(Identity), 다문화 모티프(Multicultural Motif), 원어민 (Native Speaker), 인물성격(Character), 주제 (Subject), 디아스포라(Diaspora), 갈등(Dissension), 이민(Immigration), 언어(Language)

28 한국문예창작 제9권 제3호(통권 제20호)

- 논문접수일 : 2010. 11. 10.
- 심사일 : 2010. 11. 25.
- 게재확정일 : 2010. 12. 10.